

## 석모도 바람길 감성의 촉수를 뒤흔드는 해안 제방길

최근 강화도 본섬과 다리로 연결된 석모도는 바다, 해변, 갯벌, 산, 절집, 온천, 수목원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널려 있는 '섬 아닌 섬'이다. 석모도 바람길은 아름다운 바다와 더불어 염전 터, 화강암 절집까지 두루 만날 수 있는 낭만 길이다. 그냥 걷다 보면 허했던 마음에 충만감이 스며든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강화(江華)는 육지 같은 섬이다. 강을 끼고 있는 좋은 고을이라는 뜻을 품은 강화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해 일 년 열 두 달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산과 바다, 갯벌을 두루 품고 있고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유적과 유물이 널려 있다.

'나들이 가듯 걷는 길'이란 뜻을 지닌 강화 나들길은 화남 고재형(1846~1916)이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을 노래하며 걸었던 강화의 끊어진 길을 잇고, 잊힌 길을 찾아 강화가 품고 길러 낸 자연과 땅 위의 모든 것을 연결한 길이다. 강화도 선비 고재형은 1906년 강화도 곳곳을 누비며 각 마을을 주제로 256편의 한시를 짓고, 마을 유래와 풍광, 인물, 생활상을 기록한 '심도기행'(沁都紀行)을 펴냈다. 2013년 말 완공된 강화 나들길은 심도역사 문화길(18km, 6시간), 호국돈대길(17km, 5시간 50분), 고려왕릉 가는 길(16.2km, 5시간 30분), 해가 지는 마을 길(11.5km, 3시간 30분), 고비고개길(20.2km, 6시간 40분), 화남생가 가는 길(18.8km, 6시간), 낙조 보러 가는 길(20.8km, 6시간 40분), 철새 보러 가는 길(17.2km, 5시간 40분), 교동도 다울새 길(16km, 5시간), 머르메 가는 길(17.2km, 5시간 40분), 석모도 바람길(16km, 5시간), 주문도 길(11.3km, 3시간), 불음도 길(13.6km, 3시간 30분), 강화도령 첫사랑 길(11.7km, 3시간 30분), 고려궁 성곽길(11km, 4시간), 서해 황금 들녘길(13.5km, 4시간), 고인돌 탐방길(12km, 3시간 40분), 왕골공예마을 가는 길(15km, 4시간 30분), 석모도 상주 해안길(10km, 3시간 30분), 갯벌 보러 가는 길(23.5km, 7시간 30분) 등으로 나뉜다. 강화 나들길은 20개 코스에 총 310.5km로 제각각 품은 풍경과 이야기는 다르지만 걷는 내내 눈과 마음이 즐겁다.

제11코스인 석모도 바람길은 석포리 선착장에서 보문사 입구까지 16km에 달하며 소요시간은 5시간이다. 대부분 제방을 따라 걷는 이 길은 일명 '보문사 가는 길'로도 불린다.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갯벌, 해변 그리고 자그마한 숲을 끼고 도는 코스다. 사단법인 강화 나들길의 강복희 상임이사는 "석모도의 바람은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흩뿌리는 바람으로, 온몸에 살짝 얹히는 바람을 품고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걷는 재미에 시나브로 녹아든다"며 "석모도 바람길은 그냥 걸기만 해도 좋은 길"이라고 말한다.

석모도(席毛島)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三山面)에 속한다. 총면적 4만 5천622㎡에 이르는 석모도에는 1천200여 가구, 2천300여 명이 거주한다. 석모도 지명은 조선 후기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책으로 엮은 전국 읍지 '여지도서'에서 '돌투성이인 산자락의 모퉁이로 물이 돌아 흐른다'고 하여 '돌모루'라는 뜻의 '석모로'란 이름이 붙은 뒤 자연스럽게 석모도가 됐다. 해명산(327m), 상봉산(316m), 상주산(264m) 등의 봉우리가 한자의 산(山)자 모양을 이루고 있어 '삼산' 면이다.





###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 길

석모도 바람길은 석포리 선착장에서 시작한다. 지난 6월 말 강화 본섬과 석모도를 잇는 석모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외포리 선착장에서 카페리에 몸을 싣고 1.2km의 바닷길을 건너야 했다. 물과 연결돼 막배 끊기는 걱정 없이 언제든지 쉽게 오갈 수 있는 '섬 아닌 섬'이 됐지만 10여 분 동안의 뱃길에서 새우깡을 들고 갈매기와 '밀고 당기기'를 하던 풍경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음식점, 선착장 개찰구, 대합실 건물, 버스정류장 표시판 등은 예전 그대로 모습이지만 어딘가 파장을 앞둔 오일장처럼 쓸쓸한 분위기다.

선착장에서 제방길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드넓은 갯벌이, 오른쪽으로 해명산과 너른 들판이 펼쳐진다. 오래전 이 일대는 갯벌이었는데 고려 때부터 근래까지 간척사업을 벌여 여러 섬이 합쳐졌고, 섬치고는 꽤 넓은 농토를 이루게 됐다.

물 빠진 갯벌 위로는 철계가 수없이 기어 다니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농계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바닷가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칠면초가 갯벌에 붉은 웅단을 깔아 놓은 듯 장관을 이룬다. 한해살이풀인 칠면초는 연둥빛, 회색, 녹색 등 일곱 번 빛깔을 달리하는데 가을 무렵 붉은빛이 도는 자주색으로 변한다. 11월이면 하얗게 말라 죽는다. 가을이 되면 산과 들뿐만 아니라 바다도 붉은빛으로 곱게 물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나문재라 불리는 나마자기는 질긴 생명력을 과시한다. 밀물 때도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염생식물로, 함민복 시인은 '조금벌에 빨물 뒤집어쓰지

않아/ 빛깔 고운 나마자기야'라고 묘사했다.

갯벌과 염생식물에 취하다 보면 바닷물과 바람이 만든 자연 조각품인 해안 바위에 닿는다. 50m의 해안 바윗길을 걷다 다시 민들레와 비슷한 사대풀이 노란빛을 뽐내는 독길을 걷는다. 보문 선착장을 지나 제방길을 걷다 보면 '삼량(三良)염전 역사와 유래' 안내판과 마주친다. 한때 천일염을 생산했던 염전은 간데없고 지금은 통통마디, 칠면초 등 염생식물만 자라고 있다. 1957년 매음리 연안 일대를 매립해 240ha의 염전과 농장을 개척하였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물에 잘 녹고 짠맛도 강하지 않아 최상급 소금으로 평가받았다. 인간비와 생산비에 비해 소금값이 제자리걸음을 한 탓으로 2006년부터 생산을 중단했고, 현재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 '민머루' 해변

삼량염전을 지나면 송어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어류정항이다. 계구멍이 송송 뚫린 개펄에 올라앉은 어선과 개펄 사이로 난 수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은 한 폭의 풍경을 그려낸다. 어류정항을 둘러본 뒤 마을 한가운데 있는 바람길로 발길을 옮기면 민머루 해변까지 이어지는 산길이다. 1.1km 숲길에서 꽃을 뒤집으면 보부상들이 쓰던 모자처럼 생긴 패랭이꽃이 눈에 밝힌다. 시인 류시화는 '패랭이꽃'이라는 시에서 "이상하지 않은가 삶이라는 것은/ 자꾸만 눈에 밝히는/ 패랭이꽃"이라고 노래했듯이 지천으로 피어있는 소박한 꽃이다.

산길에서 내려서면 섬 내 유일한 해수욕장인 민머루 해변이다. 민머루

는 삼량염전에서 해수욕장으로 가는 고갯길에 민 씨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머루는 마루(고개)가 변해서 된 말이다. 백사장의 길이가 1km, 폭은 50m 정도이며, 물이 빠지면 약 1km 정도의 갯벌이 펼쳐진다. 노을뿐만 아니라 주변 경치 또한 빼어나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사진작가들의 촬영 장소로도 널리 알려졌다. 영화 '취화선'에서 장승업이 김병문 선생을 찾다니던 중 갯벌에서 우연히 만나는 장면이 촬영된 곳으로 많은 사람이 몸에 개흙을 바르고 해수욕을 즐긴다.

모래 해변을 가로질러 산길을 100여m 오르면 횡집 '바다의 마음'이 위치한 아트막한 언덕이다. 이곳에 서면 발아래로 굽어보는 민머루 해변이 제법 넓고 시원하며 주문도, 아차도, 불음도, 말도 등 바다에 흩뿌려진 울망졸망한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산굽이를 돌면 산마루가 장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장구너머 포구가 나타난다. 장구너머 포구 입구의 양주농협 강화교육원을 끼고 산길로 들어서 조금 가다 보면 노루목 펜션이 나오고, 이어 어류정수문 입구와 '중점 3.9km'라는 이정표와 만난다. 개망초와 망초가 함께 핀 제방길을 따라가면 오른쪽으로 낚시터와 새우양식장이, 저 멀리 보문사의 눈썹바위가 보인다. 가끔 멈춰 서서 넓게 펼쳐진 바다 풍광을 바라본다. 간간히 내리는 보슬비에 아랑곳없이 바다 풍광과 바닷바람에 피로가 녹아내린다. 빠른해진 다리를 재촉해 걸으면 주문도와 불음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에 이른다. 포토존 한쪽 편에는 제12코스 주문

도 길과 제13코스 불음도 길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제방길을 내려서서 보문사 쪽으로 600m 걸으면 제11코스 중점인 보문사 주차장이다.

### 서해 바라보며 즐기는 온천욕

체력에 따라 버스를 타고 선착장으로 되돌아가거나 '기도밭' 좋고 소문난 보문사(普門寺)를 둘러볼 수 있다. 보문사는 양양 낙산사, 금산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상 관음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주문을 지나 가파른 경사길을 오르면 진신사리 봉안탑과 오백나한상, 와불상을 모신 와불전, 거대한 화강암 석실이 탐방객을 맞는다. 마애석불좌상은 거친 숲을 몰아쉬며 419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1928년 눈썹바위에 조각된 마애석불좌상은 높이 9.2m, 폭 3.3m로, 마애불의 시선과 방향을 같이하면 '아~'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서해와 크고 작은 섬들이 두 눈에 담긴다. 특히 사위를 붉게 물들이는 해넘이는 천상의 비경이다.

강화군이 조성한 보문사 입구의 미네랄 온천은 살넝탕, 노천탕(15개), 황토방, 옥상 전망대, 족욕탕 등을 갖추고 있다. 460m 지하암반 틈에 고여 있던 바닷물을 뽑아 올린 51도의 천연 온천수를 그대로 식혀서 쓴다. 노천탕에서 서해를 바라보며 수평선으로 넘어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어 해풍과 햇빛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야간 경관과 함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



1 석모도 바람길 출발지인 석포리 선착장의 강화 나들길 안내판. '나들이 가듯 걷는 길'이란 뜻을 지닌 강화 나들길은 20개 코스에 총 310.5km에 달한다.



3 제방 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칠면초가 갯벌에 붉은 용단을 깔아 놓은 듯 장관을 이룬다.



4 바닷물과 바람이 만든 자연 조각품인 해안 바위는 여행객의 쉼터로 활용된다.



5 1957년 윤철상이 매머리 연안 일대를 매립하여 천일염을 생산했던 삼양(三良)염전. 지난 2006년부터 생산을 중단해 지금은 통통마디, 칠면초 등 염생식물만 자라고 있다.

6 송어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어류정항. 이곳에서 민머루 해변까지의 산길이다.



7 섬 내 유일한 해수욕장인 민머루 해변은 길이 1km, 폭 50m의 모래사장과 갯벌로 이루어졌다. 물이 빠지면 약 1km 정도의 갯벌이 펼쳐진다.



8 미네랄 온천은 460m 지하암반 틈에 고여 있던 뜨거운 바닷물을 뽑아 올린 천연 온천수를 그대로 식혀서 쓴다.



9 보문사 일주문을 지나 경내 초입에서 만나는 오백나한상. 오백분의 모습과 표정이 제각각이다.



10 낙가산 중턱의 눈썹바위 아래에 새겨져 있는 마애관세음보살좌상. 눈썹바위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서해 바다의 풍광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 석모도 자연휴양림

## 산과 들, 바다의 풍광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

석모도 자연휴양림은 산림 휴양뿐만 아니라 바다 풍광과 노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장소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울창한 숲 속을 거닐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찌든 때들이 말끔히 씻겨 나간다.

글 이창호 기자·사진 전수영 기자

석모도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상봉산(316m)에 오르면 단풍으로 형형색색 뒤덮인 산자락과 황금 들녘, 그리고 서해에 흩뿌려진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상봉산~낙가산~해명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바다를 걷는 듯하고, 석양이 빛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128만 3천632㎡에 달하는 자연휴양림은 2011년 4월 콘도형인 산림문화휴양관(4인실, 10인실), 2013년 7월 석모도 수목원, 2015년 7월 통나무집 형태의 숲속의 집(6인실, 8인실, 18인실, 22인실) 개장 등 단계별로 조성됐다. 숙박 시설이 소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 50여 종에 달하는 울창한 나무 무리 속에 파묻혀 있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에 좋다. 방 안에도 숲의 기운이 그대로 전해지고, 하룻밤

사이에 일상생활의 찌든 때들이 말끔히 씻겨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세미나나 워크숍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야외 족구장도 갖추고 있다. 자연휴양림에는 크게 3개의 산책로가 있다. 1코스는 산림문화휴양관에서 산책로, 숲속의 집을 거쳐 석모도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1.5km로 30분이면 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 2코스는 산림문화휴양관에서 임도, 숲속의 집을 거쳐 석모도 수목원에 도착하는 2.5km로 50분이 걸린다. 3코스는 산림문화휴양관에서 상봉산을 거쳐 석모도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4km로 2시간이 소요된다.

숲속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석모도 수목원(50만 864㎡)은



데크 길을 걸으면서 습지 식생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고산습지원, 붓꽃 들을 심어 놓은 아이리시원, 70여 종의 나리꽃을 만날 수 있는 꽃 나리원, 자생 참나무를 자연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참나무원 등 12개의 테마별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보유 식물은 목본 381종, 초본 763종 등 총 1천144종, 13만 분에 달한다.

숲 해설과 목공예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300m의 조류 테마로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사람을 잘 따르는 텃새인 곤줄박이, 소리가 아름다운 노랑딱새, 시끄러운 수다쟁이 텃새인 직박구리, 검은색 긴 넥타이를 한 박새 등이 많아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곤충(사슴벌레, 잠자리, 나비, 매미), 식물(할미꽃, 양지꽃, 참취, 강아지풀), 동물(디람쥐, 너구리, 족제비, 고슴도치), 조류(딱새, 노랑턱멧새), 어류(송어, 말뚝망둥이) 등 다양한 표본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표본실은 자연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 Tip

##### [ 이용 방법 & 요금 ]

석모도 자연휴양림은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휴양 공간이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2시, 체크아웃 시간은 다음날 오전 11시. 모든 객실에 TV·냉장고·에어컨이 구비돼 있다. 침구·식기 등 객실 비품은 투숙정원에 맞춰져 있다. 수건을 포함한 개인용 세면 물품은 지참해야 한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7월 1일~8월 31일)·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과 비수기가 다르다.

**산림문화휴양관** 4인실 7만5천원(성수기·주말)/5만2천원(비수기·평일), 10인실 15만원/9만7천원. **숲속의 집** 6인실 12만5천원/10만원, 8인실 15만원/12만원, 18인실 30만원/24만원, 22인실 37만5천원/28만원. 회의실(8시간)은 30만원/22만원.

예약은 석모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http://forest.ganghwa.go.kr/open\\_content/](http://forest.ganghwa.go.kr/open_content/))에서 매월 1일 0시부터 선착순 익월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 문의 ]

석모도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관리사무소

☎ 032-932-1100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 032-932-1141

##### [ 가는 길 ]

